



**KOREAN A1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SUPERIOR – PRUEBA 1**

Monday 10 May 2004 (afternoon)  
Lundi 10 mai 2004 (après-midi)  
Lunes 10 de mayo de 2004 (tarde)

2 hours / 2 heures / 2 hora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a) 고향길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내 살던 집 뒷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여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리  
 담 너머로 늙은 수유나뭇잎 날리거든  
 5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 마시고  
 가윗소리 요한한 옛장수 되어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  
 감석 깔린 장길은 피하려네.  
 내 좋아하던 고무신 집 딸 아이가  
 10 수를 끼고 앉았던 가갯방도 피하려네  
 두엄더미 수북한 쇠전 마당의  
 금줄기 찾는 허망한 금전꾼 되어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장국밥으로 허기를 채우고  
 15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닭기만 하리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신경림 시집 ‘농무’ 에서)

1(b) 그믐달

나는 그믐달을 사랑한다. 그믐달은 요염하여 감히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이 깜찍하게 예쁜 계집같은 달인 동시에, 가슴이 저리고 쓰린 가련한 달이다. 서산 위에 잠깐 나타났다 숨어 버리는 초생달은 세상을 후려 삼키려는 독부(毒婦)가 아니면, 철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지마는, 그믐달은 세상의 갖은 풍상을 다 겪고 나중에는 그  
 5 무슨 원한을 품고서 애처롭게 쓰러지는 원부(怨婦)와 같이 애절하고 애절한 맛이 있다. 보름에 둥근 달은 모든 영화와 끝없는 승배를 받는 여왕과도 같은 달이지마는, 그믐달은 애인을 잃고 쫓겨남을 당한 공주와 같은 달이다.

초생달이나 보름달은 보는 이가 많지마는, 그믐달은 보는 이가 적어 그만큼 외로운 달이다. 객창(客窓) 한등에 정든 임 그리워 잠 못들어 하는 분이나, 못 견디게 쓰린  
 10 가슴을 움켜 잡은 무슨 한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달을 보아주는 이가 별로이 없을 것이다. 그는 고요한 꿈나라에서 평화롭게 잠들은 세상을 저주하며, 홀로이 머리를 흘뜨리고 우는 청상과 같은 달이다. 내 눈에는 초생달 빛은 따뜻한 황금빛에 날카로운 췌소리가 나는 듯하고, 보름달은 치어다 보면 하얀 얼굴이 언제든지 웃는 듯하지마는, 그믐달은 공중에서 번듯하는 날카로운 비수(匕首)와 같이 푸른 빛이 있어 보인다. 내가  
 15 한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달을 많이 보고 또 보기를 원하지만, 그 달은 한 있는 사람만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돌아가는 술 주정꾼과 노름하다 오줌누러 나온 사람도 혹 어떤 때는 도둑놈도 보는 것이다.

어떻든지 그믐달은 가장 정있는 사람이 보는 동시에, 또는 가장 한 있는 사람이 보아주고, 또 가장 무정한 사람이 보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보아 준다.  
 20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믐달 같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나도향, '조선문단' 게재)